Seoul Mayor Press Release Coverage Report

As of March 26, 2019

- **Headline:** AMCHAM Hosts Special Luncheon with Seoul Mayor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 **Release Date:** March 25, 2019
- **Coverage Result:** 72 articles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Print				
1	박원순 시장 "외투기업에 현금·입주공간 지원"	Maeil Business	Print/Online	2019-03-26
2	박원순 "난 진짜 사업가…서울에 투자해달라"	Seoul Business	Print/Online	2019-03-26
3	Seoul desires more Americans	Korea Joongang Daily	Print/Online	2019-03-26
4	Seoul mayor woos foreign investors	Korea Times	Print/Online	2019-03-26
5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에 투자하는 해외기업, 전폭 지원하겠다"	E-Today	Print/Online	2019-03-26
6	암참, 10 년만 서울시장 만나 외국인 투자 등 논의	Metro	Print/Online	2019-03-26
Press Coverage				
7	박원순 "해외 기업, 서울에 투자하면 입주공간·현금 지원"	Chosun Biz	Online	2019-03-25
8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기업에 현금 지원"	Asia Today	Online	2019-03-25
9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업무공간과 현금 등 전폭 지원"	Digital Times	Online	2019-03-25
10	박원순 "강북 옥탑방 생활 결과물이 강북횡단철도"	Hankyung Business	Online	2019-03-25
11	박원순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공간 등 전폭적으로 지원"	Money Today	Online	2019-03-25
1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인 투자유치 논의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1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인 투자유치 논의	Busan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14	주한미국상공회의소, 10 년만에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Asia Business	Online	2019-03-25
1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열어	E-Daily	Online	2019-03-25
16	10 년 만에 만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서울시장…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논의	E-Today	Online	2019-03-25

17	박원순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공간 지원”	KBS News	Online	2019-03-25
18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전폭 지원"	Hankyung TV	Online	2019-03-25
19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 방안 제안할 공간 신설"	YTN	Online	2019-03-25
20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 지원"...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서울시와 많은 것 논의"	MBN	Television	2019-03-26
21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 지원"...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서울시와 많은 것 논의"	MBN News	Youtube	2019-03-26
2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논의	MBN News	Online	2019-03-26
23	Seoul City Plans to Woo Foreign Firms, Talents with Benefits	KBS News World	Online	2019-03-25
24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전폭 지원"	tbs	Online	2019-03-25
25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기술 제안받을 공간 신설"(종합)	Yonhap News	Online	2019-03-25
26	박원순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	News1	Online	2019-03-25
27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NBN News Agency	Online	2019-03-25
28	박원순 “성공 가능성 높은 외국인 창업자에 주거도 지원"	Business Post	Online	2019-03-25
29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현금지원 하겠다"	Bridge Business	Print/Online	2019-03-25
30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기술 제안받을 공간 신설	E2News	Online	2019-03-25
31	박원순 "외국인 창업자 위해 비자완화·현금지원 추진"	Honam News	Print/Online	2019-03-26
Photo Coverage				
3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Yonhap News	Online	2019-03-25
33	인사말 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Yonhap News	Online	2019-03-25
34	박원순 서울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초청	Yonhap News	Online	2019-03-25
35	인사말 하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Yonhap News	Online	2019-03-25
36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Yonhap News	Online	2019-03-25

37	Seoul mayor attends U.S. biz body's luncheon meeting	Yonhap News	Online	2019-03-25
38	오찬 간담회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39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Newsis	Online	2019-03-25
40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제프리 존스	Newsis	Online	2019-03-25
41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42	오찬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4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	Newsis	Online	2019-03-25
44	간담회장 들어서는 박원순-제프리 존스	Newsis	Online	2019-03-25
45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46	간담회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47	모두발언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Newsis	Online	2019-03-25
48	간담회하는 박원순-제임스 김	Newsis	Online	2019-03-25
49	모두발언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Newsis	Online	2019-03-25
50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51	대담하는 박원순 시장	News1	Online	2019-03-25
52	손 잡은 박원순 시장·암참 회장·암참 이사회 회장	News1	Online	2019-03-25
53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대담하는 박원순 시장	News1	Online	2019-03-25
54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대담	News1	Online	2019-03-25
55	박원순 시장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	News1	Online	2019-03-25
56	박원순 시장 '암참 오찬간담회'	News1	Online	2019-03-25
57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들어서는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58	나란히 자리한 박원순 시장 - 제임스 김 회장	Newspim	Online	2019-03-25
59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자리한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6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대화 나누는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61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만난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62	박원순 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참석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63	박원순 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참석	Busan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64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Sudokwon Ilbo	Online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	박원순 시장 "외투기업에 현금·입주공간 지원"	Maeil Business	Print/Online	2019-03-26

매일경제
2019년 03월 2
29면 (사

박원순 시장 "외투기업에 현금·입주공간 지원"

암참 간담회 취임후 첫 참석
"외국인 인재에 비자 완화
평양 올림픽도 지지해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2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앞줄 오른쪽)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바이오허브, 양재 R&D캠퍼스 등 6대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통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과 투자 확대에 대해 서울시장실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1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박 시장이 초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박 시장은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스트럭처와 풍부한 고급 인력 등 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서 서울의 매력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다. 박 시장은 "외국인을 위한 정주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인재나 창업자에게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6대 융합 신산업 거점 중 하나로 육성 중인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면서 이 허브 안에 외국인 창업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서울 물가가 높고 주거 문제도 있는 만큼 외국인의 한국 창업을 촉진할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모두발언 이후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대담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수많은 기업들은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암참 회원사 중에서도) 부디 망설이지 말고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과 평양의 2032년 공동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중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 "평양을 후원할 준비도 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청년 고용률이 부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는 유니콘 창업기업이나 우량중소·중견기업이 많지 않다"며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과 대담을 마친 제임스 김 회장은 "이번 대담은 서울시·암참 간 강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23.9×16.8)

MK 매일경제 MBN

박원순 시장 "외투기업에 현금·입주공간 지원

암참 간담회 취임후 첫 참석
"외국인 인재에 비자 완화
평양 올림픽도 지지해달라"

입력 : 2019.03.25 17:27:08 수정 : 2019.03.25 19:45:20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가운데)이 2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에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앞줄 오른쪽)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바이오허브, 양재 R&D캠퍼스 등 6대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통해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금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과 투자 확대에 대해 서울시장실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1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박 시장이 초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박 시장은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스트럭처와 풍부한 고급 인력 등 해외 기업들의 투자처로서 서울의 매력을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다.
박 시장은 "외국인을 위한 정주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인재나 창업자에게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6대 융합 신산업 거점 중 하나로 육성 중인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면서 이 허브 안에 외국인 창업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서울 물가가 높고 주거 문제도 있는 만큼 외국인의 한국 창업을 촉진할 여러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모두발언 이후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대담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수많은 기업들은 분명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암참 회원사 중에서도) 부디 망설이지 말고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과 평양의 2032년 공동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중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 "평양을 후원할 준비도 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청년 고용률이 부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는 유니콘 창업기업이나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많지 않다"며 "더 많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과 대담을 마친 제임스 김 회장은 "이번 대담은 서울시·암참 간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	박원순 "난 진짜 사업가...서울에 투자해달라"	Seoul Business	Print/Online	2019-03-26

서울경제

2019년 03월 2
35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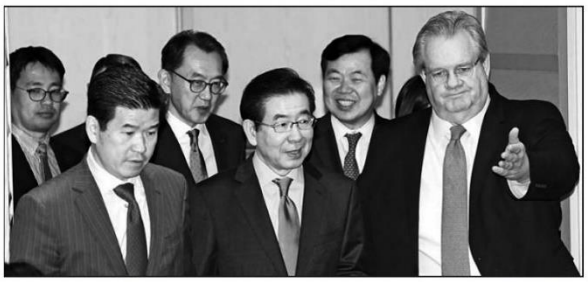
박원순 "난 진짜 사업가…서울에 투자해달라"

서울시장으론 11년만에 암참 만나
외국기업 서울에 투자땐 현금 지원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인재는 비자 요건 완화에
공공주택 입주 등 정주 여건 개선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진짜 사업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가 마인드를 강조하며 서울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참이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박 시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 시내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외국인 인재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앞줄 가운데) 서울시장과 제프리 존스(〃 오른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장, 제임스 김(〃 왼쪽) 암참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날 통역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유창한 영어로 서울시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의 외국 경제단체이다. 한국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700여개의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10년 넘게 기다렸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그것은 내가 정치인이라기보다 진짜 사업가이기 때문"이라며 "사업가는 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망설임 없이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이 서울시장을 만난 것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1년 만이다.

박 시장은 "최근 10년간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무려 63억달러에 이른다"며 "한국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로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풍부한 고급 인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꼽힌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미세먼지는 서울 한국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은 이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시장 이후 다른 선출직(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조선왕조가 시작된 1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내가 서울시장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다면 4년 후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며 웃음을 보였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24.0×15.1)

서울경제

박원순 "난 진짜 사업가...서울에 투자해달라"

서울시장으론 11년만에 암참 만나
외국기업 서울에 투자땐 현금 지원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인재는 비자 요건 완화에
공공주택 입주 등 정주 여건 개선

김정욱 기자 | 2019-03-25 17:29:37 | 사회일반



박원순(앞줄 가운데) 서울시장과 제프리 존스(← 오른쪽)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장, 제임스 김(← 왼쪽) 암참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진짜 사업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가 마인드를 강조하며 서울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참이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박 시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 시내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외국인 인재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역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유창한 영어로 서울시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많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의 외국 경제단체이다. 한국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700여 개의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10년 넘게 기다렸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그것은 내가 정치인이라기보다 진짜 사업가이기 때문"이라며 "사업가는 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망설임 없이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이 서울시장을 만난 것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1년 만이다.

박 시장은 "최근 10년간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무려 636억달러에 이른다"며 "한국이 외국인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로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풍부한 고급 인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꼽힌다"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미세먼지는 서울·한국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은 이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시장 이후 다른 선출직(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조선왕조가 시작된 13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내가 서울시장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다면 4년 후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며 웃음을 보였다. 김 회장은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g@sedaily.com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	Seoul desires more Americans	Korea Joongang Daily	Print/Online	2019-03-2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ayor Park Won-soon, left, discusses with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Chairman James Kim about the city's plans to draw more foreign investment by providing cash and housing support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central Seoul on Monday.

Seoul desires more Americans

At Amcham event, Mayor Park promises enticements like cash

BY CHAE YUN-HWAN

Seoul Mayor Park Won-soon is promising a wide range of support to foreign investors — from housing to cash — in an effort to make the city a global hub for business.

At an event host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on Monday, Park outlined plans to provide support for foreign investors at the city's six new industrial cluste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willing to provide office space within the industrial clusters and cash support, in which we are cooperating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Park.

The industrial cluster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nclude one in Magok-dong in western Seoul that specializ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 Yangjae-dong in southern Seoul that focu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Park also said the city is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o ease visa guidelines for foreign start-ups that are highly likely to succeed and provide them with housing support through public housing.

Appealing to American businesses, which have made $9.5 billion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ity in the past 10 years, Park emphasized the city's infrastructure and its wide pool of educated youth as strengths.

"Many global companies regard Seoul as a gateway to the Asian market thanks to th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said Park. "Seoul is a young city, people in Seoul are ... receptive to new trends and it is a test bed for new products and technologies."

The mayor addressed concerns that rose last year of the possible ending of a flat-rate income tax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warned that it could lead to an outflow of foreign talent.

"The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employees will not be abolished and instead be extended for three more years," said Park.

While concerns were raised that the flat-rate tax could end this year, the central government reinstated the exemption last year, according to 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Speaking with Amcham Korea Chairman James Kim after his address to Amcham members, Park emphasized cooperation with other cities abroad to reduce the growing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The problem is that fine dust is arising from complicated and different dimensions so a more complex and diverse action must be taken," said Park, explaining that the city is working with other East Asian cities such as Beijing, Tokyo and Ulaanbaatar.

chae.yunhwan@joongang.co.k

KOREA JOONGANG DAILY

Seoul desires more Americans

At Amcham event, Mayor Park promises enticements like cash

Mar 26,2019



Seoul Mayor Park Won-soon, left, discusses with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Chairman James Kim about the city's plans to draw more foreign investment by providing cash and housing support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central Seoul on Monda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ayor Park Won-soon is promising a wide range of support to foreign investors - from housing to cash - in an effort to make the city a global hub for business.

At an event host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mcham) on Monday, Park outlined plans to provide support for foreign investors at the city's six new industrial cluster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willing to provide office space within the industrial clusters and cash support, in which we are cooperating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Park.

The industrial cluster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nclude one in Magok-dong in western Seoul that specializ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 Yangjae-dong in southern Seoul that focu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Park also said the city is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o ease visa guidelines for foreign start-ups that are highly likely to succeed and provide them with housing support through public housing.

Appealing to American businesses, which have made $9.5 billion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city in the past 10 years, Park emphasized the city's infrastructure and its wide pool of educated youth as strengths.

"Many global companies regard Seoul as a gateway to the Asian market thanks to th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said Park. "Seoul is a young city, people in Seoul are ... receptive to new trends and it is a test bed for new products and technologies."

The mayor addressed concerns that rose last year of the possible ending of a flat-rate income tax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warned that it could lead to an outflow of foreign talent.

"The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 employees will not be abolished and instead be extended for three more years," said Park.

While concerns were raised that the flat-rate tax could end this year, the central government reinstated the exemption last year, according to 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Speaking with Amcham Korea Chairman James Kim after his address to Amcham members, Park emphasized cooperation with other cities abroad to reduce the growing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The problem is that fine dust is arising from complicated and different dimensions so a more complex and diverse action must be taken," said Park, explaining that the city is working with other East Asian cities such as Beijing, Tokyo and Ulaanbaatar.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	Seoul mayor woos foreign investors	Korea Times	Print/Online	2019-03-26

THE KOREA TIMES

2019년 03월 26
01면 (종

Mayor woos foreign investors with benefits

By Nam Hyun-woo
namhw@koreatimes.co.kr

Korea will maintain a flat income tax of 19 percent for foreign nationals working here for the next three years, regardless of their income, to make the nation more attractive in the ey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Seoul mayor Park Won-soon said Monday.

Even th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does not set the income tax rate, Park claimed that he played a key role in persua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o keep the 19 percent flat rate.

In a luncheon meeting with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the mayor also said the local government is considering providing cash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and other benefits to make Seoul more business friendly.

"I remember AMCHAM Chairman of the Board of Governors Jeffrey Jones spoke about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abolishing the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foreign employees, such as the outflow of foreign talent," Park said in his speech in English to AMCHAM member company officials.



Seoul Mayor Park Won-soon, left, speaks during a luncheon with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Seoul, Monday. On his right is AMCHAM Chairman James Kim.

Courtesy of AMCHAM

"I'm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nsulted closely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special provisions will not be abolished and instead extended for three more years."

So far, foreign employees in Korea who have worked for less than five years have been subject to a 19 percent flat tax rate regardless of their income.

However, the special provision allowing the benefit was scheduled to end last year, triggering concerns from foreign businesses in Korea. Last year, AMCHAM and four other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here issued a joint statement expressing their concern on the envisioned elimination of the flat tax rate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At the time, the chambers said the elimination would "trigger relocations and involuntary repatriation of employees to lower-cost jurisdictions, which will involve job losse and a decline in Korea's ta income."

According to officials, the centra government has recently amende its rules to keep the flat tax rate fo three more years for foreigners res ident in Korea for less than fiv years. Those who have lived her longer than five years will not b eligible for the benefit. The SM also played a key role in persuad i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said.

Though the chambers' initial hop for expanding the benefit to tho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 than five years was not accepted, a AMCHAM official said the cham bers' request was "partially accept ed."

During the luncheon, Mayor Par said Seoul was "still hungry" for for eign investment and that he woul talk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bout provid ing cash support to foreigner investing in Seoul. Also, the SMG i in talks with the Ministry of Justic over exempting visas for foreigner seeking to start their own companie here.

(21.4*15.2)

THE KOREA TIMES

Light industries

Seoul mayor woos foreign investors



Seoul Mayor Park Won-soon, left, speaks during a luncheon with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Seoul, Monday. On his right is AMCHAM Chairman James Kim. Courtesy of AMCHAM

By Nam Hyun-woo

Korea will maintain a flat income tax of 19 percent for foreign nationals working here for the next three years, regardless of their income, to make the nation more attractive in the eyes of multinational companies, Seoul mayor Park Won-soon said Monday.

Even th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does not set the income tax rate, Park claimed that he played a key role in persuading the National Tax Service to keep the 19 percent flat rate.

In a luncheon meeting with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the mayor also said the local government is considering providing cash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and other benefits to make Seoul more business friendly.

"I remember AMCHAM Chairman of the Board of Governors Jeffrey Jones spoke about the possible side effects of abolishing the special provisions on taxation of foreign employees, such as the outflow of foreign talent," Park said in his speech in English to AMCHAM member company officials.

"I'm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nsulted closely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special provisions will not be abolished and instead extended for three more years."

So far, foreign employees in Korea who have worked for less than five years have been subject to a 19 percent flat tax rate regardless of their income.

However, the special provision allowing the benefit was scheduled to end last year, triggering concerns from foreign businesses in Korea.

Last year, AMCHAM and four other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here issued a joint statement expressing their concern on the envisioned elimination of the flat tax rate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At the time, the chambers said the elimination would "trigger relocations and involuntary repatriation of employees to lower-cost jurisdictions, which will involve job losses and a decline in Korea's tax income."

According to officials,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amended its rules to keep the flat tax rate for three more years for foreigners resident in Korea for less than five years. Those who have lived here longer than five years will not be eligible for the benefit. The SMG also played a key role in persua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ey said.

Though the chambers' initial hope for expanding the benefit to those who have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was not accepted, an AMCHAM official said the chambers' demand was "partially accepted."

During the luncheon, Mayor Park said Seoul was "still hungry" for foreign investment and that he would talk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bout providing cash support to foreigners investing in Seoul. Also, the SMG is in talks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over exempting visas for foreigners seeking to start their own companies here.

The visa exemption is in line with an MOU signed by the SMG and the justice ministry last year. An SMG official said the local government was in talks with the ministry about the detailed conditions for the exemption.

Park reiterated the promise he made in his New Year speech that the SMG will provide public rental apartments to foreign employees and "talent" coming to Korea.

Park also said the SMG will create six industrial clusters across the city to accommodate foreign enterprises

This was the first time in a decade for AMCHAM to host a meeting with a Seoul mayor. In the last one in 2009, then-Mayor Oh Se-hoon talked about architectural goals for the capital.

To AMCHAM Chairman James Kim's question over his intention for running for other election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ne, Park did not give a direct answer.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에 투자하는 해외기업, 전폭 지원하겠다"	E-Today	Print/Online	2019-03-26

이투데이

2019년 03월 2
021면 (오

암참 만난 박원순 "투자 기업에 패키지 지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장으로서 10여년 만에…"외투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입주공간·현금지원에 비자조건 완화·공공주택 혜택도 추진
"대선 나갈 뜻 있냐" 질문엔 "시정 집중, 다른 생각할 틈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 지원을 포함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korea)가 주관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입주공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한 현금지원제도 등으로 올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위한 비자 조건 완화 및 서울 공공주택 입주 등의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 특히 암참과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장이 암참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마지막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원순 시장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답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과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먼저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라며 "국내 요인과 외부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이웃 나라 도시와의 환경 외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교통 대책을 선도했으며, 11월에서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상시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외 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시작해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점, 베이징시를 비롯한 동아시아 도시와의 환경 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서울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사진제공 주한미국상공회의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엠보팅(모바일 투표시스템), 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 매매 서비스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2022년 대선에 나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제 삶의 길목을 여는 질문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3선 서울시장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은 책임이 막중해 시정에만 집중하고 있어 다른 생각할 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27.6×18.1

이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에 투자하는 해외기업, 전폭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 2019-03-25 15:39 | 수정 : 2019-03-25 15:44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 참석..."미세먼지 시즌제 준비 중"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관 오찬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korea·암참)이 주관한 오찬 행사에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입주공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를 통한 현금지원 제도 등으로 올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위한 비자 조건 완화 및 서울 공공주택 입주 등의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중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암참과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만났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 서울시장이 암참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이 마지막이다.

제임스 김 회장은 "박원순 시장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과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먼저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라며 "국내 요인과 외부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이웃나라 도시와의 환경 외교도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교통 대책을 선도했으며, 11월에서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상시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시작해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을 늘려나가겠다"며 "이 밖에도 베이징 시를 비롯한 동아시아 도시와의 환경 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 등 기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엠보팅, 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 중고차 매매 서비스 등에 블록 체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암호 화폐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는 등 암호 화폐 거래와 블록 체인 기술발전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2022년 대선에 나갈 의향이 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제 삶의 길목을 여는 질문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3선 서울시장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은 책임이 막중해 시정에만 집중하고 있어 다른 생각할 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6	암참, 10 년만 서울시장 만나 외국인 투자 등 논의	Metro	Print/Online	2019-03-26

metro
2019년 03월 26
L07면 (자치의정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기업에 현금 지원"

6개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수 외국인 인재 패키지 지원
"평양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 당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민간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완화,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경청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서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서울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중국과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관심 있을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는 "평양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 이후 다른 선출직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다면 4년 후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며 웃어넘겼다.

이날 박 시장은 암참 측의 통역 제공을 고사하고 직접 영어로 발언했다.

다만, 서울이 '경유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실수를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가 심한 날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15.5*12.0)c

metro

암참, 10년만 서울시장 만나 외국인 투자 등 논의

최종수정 : 2019-03-25 14:26:51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0년만에 서울 시장을 만났다.

암참은 25일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암참은 서울시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애로사항도 설명했다.

암참과 서울시는 그 밖에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발전 및 협업을 논의키도 했다.

암참과 서울시장간 회동은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이후 10년여만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원순 시장님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7	박원순 "해외 기업, 서울에 투자하면 입주공간·현금 지원"	Chosun Biz	Online	2019-03-25

ChosunBiz

박원순 "해외 기업, 서울에 투자하면 입주공간·현금 지원"

조선비즈 | 한동희 기자

입력 2019.03.25 14:40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입주공간과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조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토론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장이 암참과 공식적으로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100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책을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 광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들이 이 곳에 많다'는 말에 대해서는 "평양(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답했다.

시장직 수행 이후 다른 선출직에 도전할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 시장은 "조선왕조가 시작된 13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내가 가장 오래 한 서울시장"이라며 "(이미 3선을 했으니)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다면 4년 후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8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기업에 현금 지원"	Asia Today	Online	2019-03-25

아시아투데이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기업에 현금 지원"

장민서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25. 15:41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부처와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암참이 서울시장과 만난 것은 지난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처음이다.

박 시장은 우수 외국인 인재와 관련해 비자 조건 완화 및 공공주택 입주 등 주거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대해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다른 선출직 도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3선만 가능하다"며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 뒤 4년 후에 서울시장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9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업무공간과 현금 등 전폭 지원"	Digital Times	Online	2019-03-25

디지털타임스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업무공간과 현금 등 전폭 지원"

임재섭 기자 | 입력: 2019-03-25 15:24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사무 공간과 현금 지원도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 광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들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는 "평양(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0				

한국경제

박원순 "강북 옥탑방 생활 결과물이 강북횡단철도

2019.03.25 16:0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서 밝혀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지난해 강북 삼양동 옥탑방 생활의 결과물이 강북횡단철도"라며 "일부는 '쇼'라고 했지만 옥탑방을 통해 새로운 지하철의 청사진이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철도는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해 7~8월 삼양동에서 진행한 '옥탑방 한달 체험'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1	박원순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공간 등 전폭적으로 지원"	Money Today	Online	2019-03-25

머니투데이

박원순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공간 등 전폭적으로 지원"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2019.03.25 14:38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dadazon@newsis.com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비자완화, 주거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관한 오찬간담회에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입주 공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비자완화,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암참이 박 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 멀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를 돌파했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늘었다"며 "최근 10년 간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무려 636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의 FDI 신고는 95억 달러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로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풍부한 고급 인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IT 도시로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IT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에 서울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도 강점"이라며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울은 고급 인력이 풍부하며 서울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히 4차 산업을 선도할 6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그는 "서울 안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6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홍릉(바이오), 양재(AI), 마포(창업), 마곡(R&D), 구로(IoT), DMC 및 남산(디지털콘텐츠)"을 언급했다.

제임스 킴 암참 회장도 "박 시장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발언에 이후 박 시장과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은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볼록체인, 제로페이,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 삼양동 옥탑방 생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난 여름 한달 동안 삼양동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다"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강남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했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라며 "서울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볼록체인 등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질문에 "서울은 볼록체인 기술에 있어 굉장히 앞서 있다"며 "볼록체인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이 기꺼이 테스트 베드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담자가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냐고 묻자 박 시장은 "조선왕조 이후 가장 오래 역임한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3선만 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뒤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웃으며 답변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인 투자유치 논의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인 투자유치 논의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3.25 13:40 | 수정 : 2019.03.25 13:40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2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 대해 논의했다. 암참이 서울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암참과 서울시는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발전 및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원순 시장님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이다.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 개의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되어 있다. 암참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를 위해 한국 및 미국 정부 및 외국 기업 CEO 등 포함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사와 만난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인 투자유치 논의	Busan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부산 파이낸셜 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인 투자유치 논의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3.25 13:40 | 수정 : 2019.03.25 13:40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2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 대해 논의했다. 암참이 서울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암참과 서울시는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발전 및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원순 시장님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이다.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 개의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되어 있다. 암참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를 위해 한국 및 미국 정부 및 외국 기업 CEO 등 포함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사와 만난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4	주한미국상공회의소, 10 년만에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Asia Business	Online	2019-03-25

아시아경제

기업·CEO

주한미국상공회의소, 10년만에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최종수정 2019.03.25 13:05 기사입력 2019.03.25 13:05 댓글 쓰기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2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 대해 논의했다.

암참이 서울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 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암참과 서울시는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발전 및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원순 시장님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이다.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 개의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돼 있다. 암참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를 위해 한국 및 미국 정부 및 외국 기업 CEO 등 포함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사와 만난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열어	E-Daily	Online	2019-03-25

이데일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열어

10년만에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논의

등록 2019-03-25 오후 4:59:08
수정 2019-03-25 오후 4:59:08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암참이 서울시장과 만난 것은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참 회원사 임직원과 외국 공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암참과 박 시장은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발전 및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 시장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만남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내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정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등 패키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6	10 년 만에 만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서울시장...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논의	E-Today	Online	2019-03-25

이투데이

뉴스 > 기업 > 재계

10년 만에 만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서울시장...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 논의

기사입력 : 2019-03-25 12:41



▲25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 대해 논의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 개의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돼 있다.

암참이 서울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이 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암참과 서울시는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발전 및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원순 시장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7	박원순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공간 지원"	KBS News	Online	2019-03-25

KBS NEWS

박원순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공간 지원"

입력 2019.03.25 (15:46) | 수정 2019.03.25 (15:47)

0 0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 제공 등의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등의 지원도 하겠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 광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과 관련해 "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들이 이곳에 많다'는 말에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추진을 염두에 두고 "평양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8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전폭 지원"	Hankyung TV	Online	2019-03-25

한국경제TV

2019-03-25 14:26

박원순 "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전폭 지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을 완화하고 서울 공공주택에 입주시키는 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에 광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들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는 "평양(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 이후 다른 선출직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선왕조가 시작된 13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내가 가장 오래 한 서울시장"이라며 "(이미 3선을 했으니)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다면 4년 후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고 웃어 넘겼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19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 방안 제안할 공간 신설"	YTN	Online	2019-03-25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YTN

뉴스 홈 > 전국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 방안 제안할 공간 신설"

Posted : 2019-03-25 17:12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간이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회원사 가운데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안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0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 지원"...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서울시와 많은 것 논의"	MBN	Online	2019-03-25

MBN

뉴스 > 사회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 지원"...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서울시와 많은 것 논의"

기사입력 2019-03-26 10:30 | 최종수정 2019-03-26 12:29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공간과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박 시장과의 만남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진전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박 시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대담에서 미세먼지와 제로페이,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1	박원순 시장 "서울 투자 외국 기업에 현금 지원"...제임스 김 암참 회장 "서울시와 많은 것 논의"	MBN News	Youtube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논의	MBN News	Online	2019-03-26

MBN 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시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논의

2019.03.26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어제(25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인터뷰 :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몇 가지 어려움에도 한국은 가장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은 산업과 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저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서울로 유치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은 새로운 도약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3	Seoul City Plans to Woo Foreign Firms, Talents with Benefits	KBS News World	Online	2019-03-25

KBS WORLD Radio

Seoul City Plans to Woo Foreign Firms, Talents with Benefits

Write: 2019-03-25 16:45:53 Update: 2019-03-25 19:02:59



Photo : YONHAP News

Seoul Mayor Park Won-soon said the capital city will try to attract foreign businesses with substantial assistance, including cash.

Park revealed the plan on Monday in a lecture host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AMCHAM).

According to the mayor, Seoul will build industrial clusters in six different areas to accommodate foreign companies. Park said the city will also provide foreign firms with cash allowances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 also outlined plans to attract foreign talent, including through eased visa issuance and housing-related support, adding details will be announced via advertisements on global media outlets such as the New York Times.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4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전폭 지원"	tbs	Online	2019-03-25

tbs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전폭 지원"

손은주 기자 tbs3@naver.com | 기사입력 2019-03-25 14:45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현금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6개 지역에 산업 무리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완화, 서울 공공주택 입주 등의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을 뉴욕타임스와 세계 언론에 광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5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기술 제안받을 공간 신설"(종합)	Yonhap News	Online	2019-03-25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기술 제안받을 공간 신설"(종합)

송고시간 | 2019-03-25 14:49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민간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암참 회원사 중에서도)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안을 해달라"고 했다.

또 "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서울시가 차량 운행 규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중국 등과의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과 평양의 2032년 공동 올림픽 유치 노력을 설명하던 중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들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 "평양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언급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6	박원순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	News1	Online	2019-03-25

news1 KOREA

박원순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

암참 오찬간담회…"늘 어려운 것에 도전했다"
"강북구 옥탑방 살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서울=뉴스1) 이정일 기자 | 2019-03-25 14:26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정오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한미국 기업인들에게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진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25일 정오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저를 10년 기다렸다고 했다"며 "왜 10년을 기다리게 됐냐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사업가다. 진짜 사업가는 늘 어려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하나의 사업이 성공하면, 망설임 없이 떠나서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제임스 김 회장은 "오늘은 진짜 역사적인 날"이라며 "(박원순 시장과는)무려 10년 만의 첫 만남"이라고 박 시장을 맞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이 과거 변호사를 그만두고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고, 이어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를 설립했던 경력을 들어 유쾌하게 답변한 셈이다.

이 자리에는 박 시장과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등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시장이 암참을 만난 것은 지난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때 이후 11년 만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암참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이뤄왔고, 앞으로 함께 이뤄갈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우수한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췄고, 홍릉과 양재, 마포 등 6개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젊은 고급인력이 풍부하다. 25세에서 35세 인구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발표 후 제임스김 회장과 미세먼지, 블록체인, 일자리창출 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미세먼지는 서울, 한국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라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이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확대 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징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두고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강남과는 다른, 강북지역의 삶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강북 지하철을 확충하고 강남과 연결하는 청사진을 내놓았다"고 했다.

제임스김 회장이 "2022년 선거(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박 시장은 "저는 조선 시대 이후 가장 오래 서울시장을 한 사람"이라며 "내가 만약 다른 지자체의 장을 한 뒤 다시 서울로 오면 다시 3선을 할 수 있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7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NBN News Agency	Online	2019-03-25

민영뉴스통신사 (NBN News Agency)
내외뉴스통신

HOME > 경제·산업 > 경제정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가져

강원순 기자 | 승인 2019.03.25 17:28 | 댓글 0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3월25일 10년만에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제공)

[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25일 오후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 대해 논의했다.

암참이 서울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며 간담회에는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 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암참과 서울시는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등 분야에서 상호 발전 및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박원순 시장님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 개의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 외국기업 CEO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사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만나고 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8	박원순 "성공 가능성 높은 외국인 창업자에 주거도 지원"	Business Post	Online	2019-03-25

BUSINESS POST

박원순 "성공 가능성 높은 외국인 창업자에 주거도 지원"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 2019-03-25 18:56:46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을 위해 산업 클러스터에 입주공간을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현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는 비자를 완화하고 주거도 지원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

박 시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방향과 향후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 간담회에서는 약 100여 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인 경제단체이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서울이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자 25세에서 35세 인구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고급인력이 모이는 도시로서 투자에 적합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박 시장의 연설 이후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울 부동산 △미세먼지 △2032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청년실업 △블록체인 기술 등을 놓고 문답이 오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도 아이디어가 있다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32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가능성을 두고 "2020년은 도쿄, 2024년은 파리, 2028년은 LA에 열리기에 2032년은 아시아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가 평양과 함께한다면 파급력은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서울이 각종 행정절차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으며 블록체인기업과 기술에게 기술혁신을 위한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29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현금지원 하겠다"	Bridge Business	Print/Online	2019-03-25

"외국기업, 서울에 투자시 현금 지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강연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거와 현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 참석해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비자완화,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 떨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했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늘었다"며 "최근 10년 간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무려 636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IT 도시로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IT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에 서울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도 강점"이라며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울은 고급 인력이 풍부하며 서울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난 여름 한달 동안 삼양동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다"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강·남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했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라며 "서울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행보를 묻는 질문에 박 시장은 "조선왕조 이후 가장 오래 역임한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3선만 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뒤 다시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산업 클러스터 6개 지역에 조성
입주공간 제공 등 투자유치 정책 활성화 방안 논의

"우수 외국 인재엔 비자 완화·주거지 전폭적 지원

서울의 IT 인프라 세계적 수준
우수 인재도 많아 많은 투자 부탁"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상생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브릿지경제

박원순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현금지원 하겠다"

입력 2019-03-25 17:07 수정 2019-03-25 17:13 | 신문게재 2019-03-26 22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거와 현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강연에 참석해 "6개 지역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해 현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비자완화,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 떨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했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늘었다"며 "최근 10년 간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무려 636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IT 도시로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IT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에 서울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도 강점"이라며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울은 고급 인력이 풍부하며 서울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난 여름 한달 동안 삼양동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다"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강·남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했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라며 "서울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행보를 묻는 질문에 박 시장은 "조선왕조 이후 가장 오래 역임한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3선만 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뒤 다시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0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기술 제안받을 공간 신설	E2News	Online	2019-03-25

이투뉴스
Energy & Environment News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기술 제안받을 공간 신설

채덕종 기자 | 승인 2019.03.25 17:15 | 댓글 0

[이투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민간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할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암참 회원사 중에서도)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안을 해달라"고 했다.

또 "미세먼지는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전과제"라며 서울시가 차량 운행 규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중국 등과의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과 평양의 2032년 공동 올림픽 유치 노력을 설명하던 중 '평창올림픽을 후원한 기업들이 이곳에 많다'는 말을 듣고 "평양을 후원할 준비도 해달라"고 언급했다.

'시장 이후 다른 선출직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다면 4년 후에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며 웃어넘겼다.

이날 박 시장은 암참 측의 통역 제공을 고사하고 직접 영어로 발언했다. 다만, 서울이 '경유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실수를 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가 심한 날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1	박원순 "외국인 창업자 위해 비자완화·현금지원 추진"	Honam News	Print/Online	2019-03-26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원순 "외국인 창업자 위해 비자완화 · 현금지원 추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성공 가능성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비자완화, 주거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korea · 암참)가 주관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입주 공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금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비자완화,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암참은 1958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경제단체다. 한국 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개 기업회원 및 제휴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날 암참이 박 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 · 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 떨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돌파했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늘었다"며 "최근 10년 간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무려 636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의 FDI 신고는 96억 달러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로 3가지를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풍부한 고급 인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박 시장은 "서울은 IT 도시로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IT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에 서울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도 강점"이라며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울은 고급 인력이 풍부하며 서울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지막으로 대답자가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냐고 묻자 박 시장은 "조선왕조 이후 가장 오래 역임한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3선만 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뒤 다시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웃으며 답변했다

뉴시스

湖南新聞 i-honam.com 전라도의 정론지

박원순 "외국인 창업자 위해 비자완화·현금지원 추진"

오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산업클러스터 조성 위해 산자부 협의"
"현금지원제도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2019년 03월 25일(월) 16:19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성공 가능성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위해 비자완화, 주거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korea 암참)가 주관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입주 공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창업자를 비자완화,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경제단체다. 한국 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개 기업회원 및 체휴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날 암참이 박 시장과 만난 건 2008년 오세훈 전 시장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명의 암참 회원사 임·직원 및 외국공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사회적 갈등, 옅어질 줄 모르는 실업률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그럼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를 돌파했고,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모두 늘었다"며 "최근 10년 간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는 무려 636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의 FDI 신고는 95억 달러로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로 3가지를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풍부한 고급 인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박 시장은 "서울은 'IT 도시로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IT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고 기업 친화적 환경 덕분에 서울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인재가 많은 것도 강점"이라며 젊은 인구가 모이는 서울은 고급 인력이 풍부하며 서울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히 4차 산업을 선도할 6개의 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그는 "서울 안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6개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홍릉(바이오), 양재(AI), 마포(창업), 마곡(R&D), 구로(IoT), DMC 및 남산(디지털콘텐츠)"을 언급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박 시장과 중요한 만남을 갖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담은 서울시와 강력한 파트너십의 또 다른 진전이며 앞으로 서울시와 관계 구축을 위해 많은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모두발언에 이후 박 시장과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은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블록체인, 제로페이,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 삼양동 옥탑방 생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삼양동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다"며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강·남북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했고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라며 "서울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를 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블록체인 등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질문에 "서울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 굉장히 열려 있다"며 "블록체인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라면 서울이 기꺼이 테스트 베드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담자가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냐고 묻자 박 시장은 "조선왕조 이후 가장 오래 역임한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은 법적으로 3선만 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뒤 다시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웃으며 답변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Yonhap News	Online	2019-03-25



포토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제임스 김 회의소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photo@yna.co.kr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3	인사말 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Yonhap News	Online	2019-03-25



포토홈

인사말 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제프리 존스 회의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photo@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03/25 15:11 송고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4	박원순 서울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초청	Yonhap News	Online	2019-03-25



포토홈

박원순 서울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초청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photo@yna.co.kr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5	인사말 하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Yonhap News	Online	2019-03-25



포토홈

인사말 하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photo@yna.co.kr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6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Yonhap News	Online	2019-03-25



포토홈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서울시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임스 김 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2019.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공]

photo@yna.co.kr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7	Seoul mayor attends U.S. biz body's luncheon meeting	Yonhap News	Online	2019-03-25



Seoul mayor attends U.S. biz body's luncheon meeting

Seoul Mayor Park Won-soon (L) speaks during a luncheon meeting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t a Seoul hotel on March 25, 2019, in this photo released by the U.S. business body. At right is AMCHAM leader James Kim. (Yonhap)
(END)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8	오찬 간담회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오찬 간담회하는 박원순 시장

등록 2019-03-25 14:17:17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39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Newsis	Online	2019-0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등록 2019-03-25 14:17:17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0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제프리 존스	Newsis	Online	2019-03-25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제프리 존스

등록 2019-03-25 14:21:39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사회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1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등록 2019-03-25 14:21:39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2	오찬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오찬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록 2019-03-25 14:21:39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3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	Newsis	Online	2019-0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 참석한 박원순

등록 2019-03-25 14:24:3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4	간담회장 들어서는 박원순-제프리 존스	Newsis	Online	2019-03-25

간담회장 들어서는 박원순-제프리 존스

등록 2019-03-25 14:24:3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5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록 2019-03-25 14:34:5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6	간담회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간담회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등록 2019-03-25 14:34:5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7	모두발언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Newsis	Online	2019-03-25

모두발언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등록 2019-03-25 14:34:5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8	간담회하는 박원순-제임스 김	Newsis	Online	2019-03-25

간담회하는 박원순-제임스 김

등록 2019-03-25 14:34:5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49	모두발언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Newsis	Online	2019-03-25

모두발언하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등록 2019-03-25 14:34:5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0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Newsis	Online	2019-03-25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등록 2019-03-25 14:34:50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1	대담하는 박원순 시장	News1	Online	2019-03-25

대담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뉴스1) | 2019-03-25 17:24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인쇄 | + 확대 - 축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오찬간담회'에서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미세먼지, 블록체인, 일자리창출 등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9.3.25/뉴스1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2	손 잡은 박원순 시장·암참 회장·암참 이사회 회장	News1	Online	2019-03-25

손 잡은 박원순 시장·암참 회장·암참 이사회 회장

(서울=뉴스1) | 2019-03-25 17:24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오찬간담회'에서 제임스김 암참 회장(오른쪽),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9.3.25/뉴스1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3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대담하는 박원순 시장	News1	Online	2019-03-25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대담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뉴스1) | 2019-03-25 17:25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오찬간담회'에서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미세먼지, 블록체인, 일자리창출 등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9.3.25/뉴스1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4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대담	News1	Online	2019-03-25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대담

(서울=뉴스1) | 2019-03-25 17:25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오찬간담회'에서 제임스김 암참 회장과 미세먼지, 블록체인, 일자리창출 등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9.3.25/뉴스1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5	박원순 시장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	News1	Online	2019-03-25

박원순 시장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사업가"

(서울=뉴스1) | 2019-03-25 17:25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주한미국 기업인들에게 스스로를 "정치인이 아닌 진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서울시 제공) 2019.3.25/뉴스1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6	박원순 시장 '암참 오찬간담회'	News1	Online	2019-03-25

박원순 시장 '암참 오찬간담회'

(서울=뉴스1) | 2019-03-25 17:26 송고

기사보기 네티즌의견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오찬간담회'에서 제임스김 암참 회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9.3.25/뉴스1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7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들어서는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들어서는 박원순 시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43

가 + 가 - 프린트 Like 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 2019.03.25 leehs@newspim.com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8	나란히 자리한 박원순 시장 - 제임스 김 회장	Newspim	Online	2019-03-25

[사진] 나란히 자리한 박원순 시장 - 제임스 김 회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44

가 + 가 - 프린트 Like 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9.03.25 leehs@newspim.com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59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자리한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자리한 박원순 시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45

가 + 가 - 프린트 Like 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9.03.25 leehs@newspim.com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6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대화 나누는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대화 나누는 박원순 시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46

가 + 가 - 프린트 Like 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제임스 김 암참 회장, 박 시장,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 2019.03.25 leehs@newspim.com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61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만난 박원순 시장	Newspim	Online	2019-03-25

[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만난 박원순 시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5:46

가 + 가 - 프린트 Like 0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세번째 부터)제임스 김 암참 회장, 박 시장,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 2019.03.25 leehs@newspim.com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62	박원순 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참석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참석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3.25 15:14 | 수정 : 2019.03.25 15:14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 입주 공간과 자금지원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63	박원순 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참석	Busan Financial News	Online	2019-03-25

부산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시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참석

파이낸셜뉴스 | 입력 : 2019.03.25 15:14 | 수정 : 2019.03.25 15:14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 입주 공간과 자금지원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Headline	Media	Section	Date
64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Sudokwon Ilbo	Online	2019-03-25

수도권일보

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시장

2019. 03.25(월) 18:40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